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정종택
(환경부장관)

사전예방 및 오염자 부담원칙을 정립하여야 한다. 환경파괴는 쉽지만 복구는 정말 어려우므로 사회문화생활과 경제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안전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위해요소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예방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가 오염제거와 복구의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 환경보존 수준은 한 나라를 평가하는 잣대

지금 우리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와 함께 지구환경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환경의 세기에 한 나라의 환경보존 수준은 바로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21일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세계중심에 선 일류국가가 되려면 우선 환경모범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시면서 『녹색환경의 나라』로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환경대통령』이 될 것을 국

민앞에 엄숙히 선언하였으며 국민, 기업, 정부 모두 힘을 합쳐 실천할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종교계의 모든 지도자들께서도 이 땅위의 모든 생명이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의 실천에 합심 협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과 함께 하는 삶은 자유와 평등, 행복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속한다는 것을 새롭게 자각해야 한다.

자연은 더이상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이 평범한 진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양식”과 “생각하는 방식”을 크게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맑은 물과 깨끗한 공

기,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모두의 신성한 의무이다. 다시 말하면 지구환경시대에 모범이 되는 환경공동체를 건설하여야 하는 것이다. 환경공동체란 “자연과 인간의 연대를 회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제언들

이러한 환경공동체의 건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부행정은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정책에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확대하고, 환경과피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환경정부의 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둘째, 환경과 경제를 통합시켜 나가야 한다.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은 대립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생산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셋째, 공동책임과 생활속의 실천으로 환경보전에 힘써야 한다. 환경위기는 정부·기업·국민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 이를 모두가 자각하고 공동으로 노력할 때만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기업은 환경보전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국민 모두가 직장과 가정에서 환경과 수꾼이 되어야 한다.

넷째, 사전예방 및 오염자 부담원칙을 정립하여야 한다. 환경과피는 쉽지만 복구는 정말 어려

우므로 사회문화생활과 경제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안전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위해요소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예방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가 오염제거와 복구의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다섯째, 남북한 환경협력 및 전 지구적 환경보전에 공동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금수강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환경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지금의 환경위기는 지구라는 하나의 환경공동체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 깨끗한 축산환경을 가꾸는 것이 필요

환경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이며 희망이 없는 나라이다. 아름다운 국토를 보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모두의 숭고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깨끗한 축산환경을 가꾸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축산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다. 농촌의 실개천이 맑아야 하천이 맑아진다. 우리의 실개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축산업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자연의 아들, 딸로서 자연과 친밀해지고 자연보호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공동체 건설은 환경보전을 생활속에서 정착시키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모두 힘을 합쳐 환경모범국가를 건설해 나가도록 합시다.